



2면

“무책임한 집단서 대규모 감염 2단계 효과 지켜보아야”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음 7월 13일) 제2609호

대표전화 (063)288-9700

“성숙한 방역의식으로 코로나19 신속 극복을”

송하진 도지사, 도내 기독교계 대표 목사들과 간담회

비대면 예배 전환·대면 소모임 금지 등 요청
참석한 목사들 “지역사회 확산 막기 위해 방역당국의 권고 적극 준수할 것” 약속
송 지사 “바이러스, 종교·신앙 가리지 않아”

송하진 도지사가 도내 기독교계 대표 목사들을 긴급하게 만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도내 개신교 지도자들에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함이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28일 도 재난상황실에서 ‘전북도 기독교계 대표 간담회’를 열고 “성숙한 방역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신속하게 극복해 하루 속히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독교계 대표님들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도기독교총연

합회 황철규 목사를 비롯해 전주시기독교연합회장 배진용 목사, 군산시기독교연합회장 이일성 목사 등 12명의 도내 개신교 대표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목사들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전북도는 지난 23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도내 전체 종교시설에 비대면 종교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 전주교 전주교구 또한 교구 지침을 시달해 미사를 제외한 대면 활동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관련 감염사례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인 광주 교회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도내 기독교 대표들을 직접 만나 더욱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청정지역 전북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교인과 교회를 비롯한 도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현장예배를 비대면 온라인예배로 전환하고 각종 대면 소모임과 행사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든,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위협으로 다가왔다”며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한마음으로 바이러스 위기에 맞서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불교 총부는 9월 6일까지 법회와 소모임 등 모든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전환, 전주교 전주교구 또한 교구 지침을 시달해 미사를 제외한 대면 활동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유호상 기자



지난 28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기독교계 목회자에게 적극적인 방역준수를 요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달 2일 ‘전북 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공청회

아프리카TV 통해 생방송 진행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의견 수렴 후 내년 설립 목표

전북도는 9월 2일 비대면(온라인)으로 ‘전북 사회서비스원’ 설립 공청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전북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3월부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사회복지연구소)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설문조사와 표적집단 면접조사, 자문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중 최종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부득이 온라인 아프리카 TV를 통해 진행, 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인사말,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정책방향’ 소개, 전북대학교의 ‘전북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연구결과’ 발표, 전문가들의 토론, 온라인 참여자들의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전북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심 있는 도민은 누구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온라인 아프리카 TV에 접속 후 전북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연구 공청회-생방송 보기를 클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질의응답은 온라인으로 공청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댓글 작성 시 실시간

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직접 고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도는 내년 7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도 오택림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사회서비스 운영방안을 마련 후 내년 7월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본사 인사

▲김대환 정읍주재기자
임 : 부국장

(9월 1일자)

‘버스 안오던 우리동네, 교통불편 줄겠네’

전주형 마을버스 ‘바로온’ 연내 도입
도시 외곽지역 등 18개 노선에서 운행
요금은 시내버스보다 저렴한 500원

조촌동과 우이동, 동서학동 등 전주시 외곽 지역 주민들의 이동불편을 줄여줄 마을버스가 연내 도입된다.

전주시는 시 외곽마을과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등 18개 노선에서 운행될 전주형 마을버스인 ‘바로온’을 도입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바로온 운행 노선은 ▲고잔·신유강·덕동·홍개·청북·용신·신기·오신마을 등 여의·조촌동 방면(8개 노선) ▲혁신·만성동 방면(2개 노선) ▲금하·원금상마을 등 금암·인후·우이동 방면(3개 노선) ▲추동·학전·원당리 등 평화동 방면(1개 노선) ▲삼경사·고덕·은석마을 등 동서학동 방면(4개 노선) 등으로, 마을버스 총 14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요금은 시내버스보다 저렴한 500원으로 정해졌다.

시는 마을버스 운영을 위해 현재 운임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 전기차를 구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시는 마을버스 운영에 필요한 전기 충전소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한전, 전주시설관리공단 등과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전주시설관리공단과 운영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운행인력도 채용할 방침이다. 동시에 시는 교통카드 단말기와 환승 프로그램 등 교통카드 시스템도 구축 중이며, 마을버스 요금, 마을버스 래핑 디자인 제작 등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밖에 시는 마을버스 신설 노선과 시간표 정보 등이 수록된 마을버스 안내책자도 제작해 조촌동 등 9개 동 주민센터와 고잔마을 등 50여 개 마을에 배부할 계획이다.

시는 전주형 마을버스인 바로온이 도입되면 그간 시내버스가 운영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농촌동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기존 시내버스의 경우에도 이용객이 적고 운행거리가 길었던 노선을 개편할 수 있게 돼 버스 운전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운송회사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달 마을버스 도입 및 노선체계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마을버스 도입지역과 노선(안), 세부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마을버스 도입 예정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 방향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설명회도 가졌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마을버스 도입으로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시내버스의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도입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마을버스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